

#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정도부사 처리양상에 관한 일고찰\*

— 일한번역을 중심으로 —

박 미 숙\*\*

p-roosia@hanmail.net

## 〈 目 次 〉

- |                 |                 |
|-----------------|-----------------|
| 1. 서론           | 4. 정도 소(小)의 양상  |
| 2. 연구방법         | 4.1 한국어와의 대응 양상 |
| 3. 정도 대(大)의 양상  | 4.2 오용 및 변용     |
| 3.1 한국어와의 대응 양상 | 5. 결론           |
| 3.2 오용 및 변용     |                 |

Key word : 일본어정도부사(Japanese degree adverb),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 오역(mistranslation), 소멸(disappearance), 변용(transformation)

## 1. 서론

외국어 학습과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방식 및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일례로 2007년 소위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되면서 전자사전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구글(Goole)과 파파고(Papago) 등의 기계번역 및 통역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로 학습자의 외국어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국어 학습이 가능해지는 등 또 다른 보조교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어 학습자 혹은 일반인의 외국어로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7696)

\*\*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강사, 일본어학

접근성과 활용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외국어 학습으로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일면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일본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생각된다. 이는 일찍이 朴舜愛(2014)의 연구에서도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었으며 8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는 더욱더 변화, 발전된 ICT<sup>1)</sup>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학습내용의 점검과 계발이 곧 학습자의 요구(needs)와 통합적 동기부여로 이어져 제2언어를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어 전공자 내지는 일본어 학습자에게는 그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하던 통역·번역의 세계를 기계가 차지하는 것이어서 매우 당황스러운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sup>2)</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여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정도부사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도록 한다. 정도부사는 상태부사와 같은 수식관계의 어휘적 의미제한, 혹은 진술부사와 같은 문장 내에서의 일정한 호응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상태성의 정도의 큼(혹은 작음)을 나타내는 유형적 의미로 대별(大別)되어 타 부사에 비해 제한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의미영역이 좁은 정도부사가 기계번역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고 인간번역과의 대조 고찰을 통해 나타난 기계번역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일반적으로 부사는 문의 부차적 성분의 하나로서, 단독으로 문절(혹은 구)

1)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약자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2) 朴舜愛(2014), p.120

을 구성하고, 주로 연용수식으로 사용되는 어(語)로 정의한다. 그러나 실제 운용면에서 보면 연용수식 이외의 기능을 보이는 등, 하나의 품사로 규정하는 데에 여러 논의가 있으며, 연구자의 판단에도 상위가 보인다. 특히 일반적인 부사의 삼(三) 분류 중 정도부사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구문상의 어떠한 공기(共起)제한이 존재하는지, 또 어떠한 평가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사 중에서도 정도의 대소(大小)로 의미가 유형화되는 정도부사로 범위를 한정하여 기계번역에서의 양상을 고찰하도록 한다.

조사 자료는 일한번역으로 출간된 소설을 선정하여 일본소설에서 정도부사를 추출한다. 추출한 정도부사 중에서 분석 가능한 유의미한 빈도를 보이는 정도부사를 정도의 대(大)와 소(小)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추출된 「あまり(공정), かなり,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ぶん, とても, なかなか(공정)/少し, ちよつと」를 내포한 문장을 대표적인 기계번역 구글과 파파고로 처리한다. 단 정도소를 나타내는 「少し/ちよつと」는 「少ししか/少しは/少しの/ちよつとだけ/ちよつとでちよつとだ」 등의 조사 및 조동사 첨가를 제외한 원형만을 분석한다. 또한 기계번역과의 대조고찰을 위해 역서(譯書)에서 나타난 일본어 정도부사의 처리양상을 정리, 분석하도록 한다.

조사 방법으로는 우선 오역과 생성, 소멸에 관한 양상 분석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사는 문의 부차성분으로서 다른 필수 문장성분에 비하여 번역에서의 처리 및 대응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원문에 있는 부사가 번역과정에서 생략(소멸)되거나 반대로 새로 삽입(생성)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부사는 객관적 사실에 화자의 주관적 사상을 더하거나 제거하여 다양하게 화자의 심적(心的)태도를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풍부하고 부드럽게 혹은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일한번역에서 대응하는 정도부사가 어떻게 번역되고 생성 혹은 소멸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어순변화와 변용(變用)에 관한 양상이다. 변용에는 원래의 용법이나 의미 변화 또는 품사의 전성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어떠한 부사에서 변용이 자주 발생하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 정리하도록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사는 문장의 필수성분이 아닌 만큼 타(他)품사에 비하여 번역에서 의미나 품사의 전성, 부사의 위치 등이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오역과 변용 등의 다양한 양상을 인간번역과 대조 고찰하여 기계번역의 특징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 3. 정도 대(大)의 양상

#### 3.1 한국어와의 대응 양상

##### 3.1.1 기계번역

<표 1> 기계번역의 한국어 대응표

한국어 표현	구글							파파고						
	あまり	かなり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ぶ	とても	なかなか	あまり	かなり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ぶ	とても	なかなか
너무	82					11		82			1		55	
제법									1	1	1			1
꽤(나)		62	29	32	3		32	52	37	77	9			35
상당히		14	7	58	6		1	17		23	6			3
상당한		14						12						1
많이				3	3			4	2	23	5			
많은				1	6									
훨씬		1			1									
매우			1	12		157						1	72	
무척														
몹시			1								1			
아주				2		21					1		57	
굉장히				4		1							7	
대단히				5		1							1	
좀처럼							11							1
한참											4			
사뭇											5			
기타			1	3	1	1		3	3		4		3	
생략	3	1	2	20	1	6		3					3	3
합1242	85	92	41	140	21	198	44	85	92	41	140	21	198	44

「あまり(に/にも)」는 구글과 파파고 모두 96.4%의 비율로 [너무(나/도)]로 나타났다. 「あまり(に/にも)」는 연구자에 따라 질적정도와 양적정도의 한정에 이견이 있는 부사이다.<sup>3)</sup> 그러나 본고의 긍정문에서 사용된 「あまり(に/にも)」는 모두 순수정도의 한정이다. 이는 한국어 사전의 [너무]가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sup>4)</sup>]로 수량한정보다 정도를 한정하는 것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장은화(2021)에 따르면 [너무]는 주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정도성 부사로서의 쓰임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서정수(2005) 또한 [너무]는 대개 정도가 지나쳐서 결과가 안 좋은 것을 가리키는 데에 써야 마땅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1)(2)와 같이 부정적 어휘와의 공기 혹은 부정적 의미의 강조로 쓰이는 예문이 다수 나타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예문(3)과 같이 긍정적 평가도 있으며 서정수는 이를 단순한 강조로써 쓰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あまり」는 주로 부정의 평가성을 많이 나타내어 한국어 정도부사 [너무(나/도)]와의 대응관계가 압도적이다.

- (1) ここからの僕らの会話は、**あまり**に不毛だった上に、 (君の臍臓 p.89)  
 → 여기에서 우리들의 대화는 너무 불모였고, (구<sup>5)</sup>)  
 → 여기서부터의 우리들의 대화는 너무나 척박한 데다 (파)
- (2) **あんまり**邪魔だと思つと、小学校のときのように、 (コ, p.61)  
 → 너무 방해라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처럼, (구)  
 → 너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처럼 (파)
- (3) 昼下がりの陽だまりが**あまり**にも気持ちよかつたようだ。 (ほど, p.204)  
 → 오후의 햇빛이 너무 기분 좋았던 것 같다. (구)  
 → 낮이 내려가는 양지가 너무 기분 좋았던 것 같다. (파)

「かなり/けっこう/なかなか」는 구글에서 67.3%/70.7%/72.7%로, 「かなり/

3) 森山(1985), 仁田(2002)는 순수정도로만, 林(1997)는 양성도 겸비한 정도부사로 파악한다.  
 4)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검색일: 2022.12.11)  
 이하 한국어 부사의 사전적 정의는 모두 이에 따른다.  
 5) 구는 구글을, 파는 파파고를 의미한다.

「けっこう/ずいぶん/なかなか」는 파파고에서 56.5%/90.2%/55.0%/79.5%의 과반이상의 비율로 [꽤]로 번역되었다. [꽤]는 [보통보다 조금 더한 정도로/제법 괜찮을 정도로]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서 형용사를 비롯하여 관형사, 지정사, 동태부사류어를 두루 수식할 수 있는 한국어 부사이다. 또한 한국어 일반부사 어류는 동사와 존재사를 수식할 수 없으나 예(4)(5)와 같은 예문도 보인다. 이러한 경우 정도부사와 동사사이에는 수량이나 동태를 나타내는 ‘많이’ ‘오래’(예(31)) 등의 부사가 생략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 이처럼 다른 부사어에 비해 공기관계가 다양한 부사인 만큼 정도 대 부사의 대부분이 한국어 부사 [꽤]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かなり」「ずいぶん」(예(6)(7))의 상대성 명사 수식이 [꽤]로 나타나는 것 역시 이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부사는 순수정도와 함께 양적정도도 한정<sup>6)</sup>한다는 특징과 함께 [제법 괜찮을 정도로]의 의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부정보다는 긍정적 문맥에서의 사용이 많아 긍정적 평가성을 보다 많이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예(8)(9)).

- (4) あのさ、私けっこう同姓愛の友達とかもいるしさあ、 (コ, p.42)  
→ 있잖아, 나 꽤 동성애 친구도 있고 글썄, (파)
- (5) この部屋、古いのでゴキブリもけっこう出るんです。 (コ, p.103)  
→ 이 방, 낡았기 때문에 바퀴벌레도 꽤 나옵니다. (구)  
→ 이 방, 낡아서 바퀴벌레도 꽤 나와요. (파)
- (6) これ、かなり昔のですよね。 (海, p.180)  
→ 이것, 꽤 옛날이군요. (구)  
→ 이거 꽤 오래된 거죠. (파)
- (7) もうずいぶん昔別れている。 (海, p.68)  
→ 벌써 꽤 오래전에 헤어졌다. (파)
- (8) いわゆる肖像画を描くのはけっこう楽な仕事だった。 (騎士, p.22)  
→ 이른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꽤 편한 일이었다. (구)  
→ 이른바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꽤 편한 일이었다. (파)
- (9) 郊外の生活もなかなか楽しいけれど、やっぱり東京はにぎやかで特別だね

6) 이 중 「なかなか」에 관해서는 森山(1985)는 양성(量性)을, 林(1997)와 仁田(2002)는 양성을 지니지 않는 부사로 파악하고 있어 양성유무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

- と、 (君の名, p.238)  
 → 교외의 생활도 꽤 즐겁지만, 역시 도쿄는 활기차고 특별하다, (구)  
 → 교외 생활도 꽤 즐겁지만, 역시 도쿄는 변화하고 특별하다고 (파)

이에 더해 「ずいぶん」은 구글에서 [상당히(41.4%)], 파파고에서 [상당히(16.4%)/많이(16.4%)]의 비율이 눈에 띄었다. [상당히]는 [수준이나 실력이 꽤 높이어지간히 많이 또는 적지 아니하게], [많이]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넘게]의 의미이다 이를 통해 「ずいぶん」은 다른 부사보다 적극적으로 양적(量的)정도의 한정에 두루 사용됨을 알 수 있다(예(11)). 또한 의미 분포 역시 [꽤(나)/상당히/많이/많은/매우/아주/굉장히/대단히]등 다른 부사에 비해 넓으며 예(12)와 같이 생략되는 사례도 다수 보이는 등 가장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 부사이다.

- (10) 随分楽しそうな彼女を見ながら飲む酒は、 (君の隣臈, p.126)  
 → 상당히 즐거운 것 같은 그녀를 보면서 마시는 술은, (구)  
 (11)そうするにはずいぶん費用もかかるし、 (騎士, p.326)  
 → 그렇게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파)  
 (12) なんだかずいぶん遠い記憶のような気がするけれど、 (君の名, p.181)  
 → 어쩐지 ○ 먼 기억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구)

「だいぶ」는 621개(정도 대(大))의 정도부사 중 21개 3.3%의 비율을 보여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정도부사임을 알 수 있다. 구글에서는 [상당히]와 [많은]이 28.5%로 동일하게, 파파고에서는 [꽤/상당히/많이]가 각각 42.8%/28.5%/23.8%로 나타났다. 다른 정도부사에 비해 [상당히]와 [많이]의 비율이 높았으며(예(13)(15)) 특히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 이상임을 나타내는 형용사 [ 많다]의 활용형 [많은]으로 명사나 명사구를 꾸미는 용법도 보인다(예(14)).

전체예문으로 살펴본 평가성은 특별히 긍·부정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문의 수가 한정적이므로 이후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13) 夜眠っ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だいふ**落ち着いてきた (コ, p.58)  
 → 밤에 잠을 자게 되었고 상당히 차분해졌다 (구)  
 → 밤에 잠을 자게 되어, 상당히 안정되었다 (파)
- (14) **だいふ**席も埋まってきたのではないかな (ほど, p.48)  
 → 많은 좌석도 가득 찼다. (구)
- (15) 駅に着くとお昼より**だいふ**人が増えていた。 (君の隣臓, p.109)  
 → 역에 도착하니 점심보다 사람이 많이 늘었다. (파)

마지막으로 「とても」는 구글에서 79.2%의 비율로 [매우]와의 대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파파고에서는 [매우] 35.8%, [아주] 28.7%, [너무] 27.7%의 세 부사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매우]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아주]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부사는 유의관계에 있다. 또한 [너무] 역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연세한국어 사전』에서 [아주]와 [매우]를 [너무]의 다른 풀이로 제시함으로써 세 부사가 유의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주/매우]는 긍·부정적 의미의 서술어와의 공기제한이 없고 [아주/매우 먹었다]와 같이 양적 정도를 한정하지는 못한다. 이는 「とても」가 순수정도부사로서만 사용되는 대표적인 부사임을 입증하며 따라서 예(18)과 같이 [너무]로 번역된 「とても」 역시 모두 순수정도의 한정으로부터 나타난 예이다.

- (16) それはBにとって、**とても**屈辱的な出来事でした。 (告, p.50)  
 → 그것은 B에게 매우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  
 → 그것은 B에게 매우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파)
- (17) つまり、君は何日か前にと**とても**生々しい夢を見た。 (騎士, p.30)  
 → 즉, 너는 며칠 전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다. (구)  
 → 즉, 너는 며칠 전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다. (파)
- (18) ただ、**とても**姿勢がいいのだ。 (光, p.95)  
 → 그냥 너무 자세가 좋은 거야. (파)



3.1.2 인간번역

<표 2> 인간번역의 한국어 대응표

한국어 표현	정도 대(大)부사						
	あまり	かなり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ぶん	とても	なかなか
너무	57	1	1	3		4	
제법		4	6	2		1	13
꽤(나)		13	16	19	7		7
상당히	1	38	3	21	1		13
상당한		6		2			
많이			1	2	4		
많은		1					
훨씬		2		1	3		
매우				11		34	1
무척				7		42	
몹시		3		8		20	1
아주		2		9		21	1
굉장히		2	1	4		18	
대단히				2		9	
좀처럼							
한참					1		
사뭇				3			
기타	16	8	7	35	4	28	5
생략	11	12	6	11	1	21	3
총계(621개)	85	92	41	140	21	198	44

먼저 「あまり」는 예(19)와 같이 [너무(67.0%)]의 비율이 가장 높아 기계번역과의 비율 차이는 있으나 가장 선호하는 한국어 부사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정도부사 중에서 사용범위가 넓어 기계번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꽤」가 인간번역의 「かなり(14.1%)/けっこう(39.0%)/ずいぶん(13.5%)/だいぶん(33.3%)/なかなか(15.9%)」(예(20)(21))에서도 나타남으로써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표 1>에서 제시된 기계번역의 부사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계번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나의 부사로 대표되는 쓸림현상은 인간번역에서는 현저하지 않다.

이는 <표 3>의 한국어로 번역된 정도부사의 순위와 비율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구글번역에서 [매우(27.3%)/꽤(25.4%)/너무(14.9%)], 파파고에서는 [꽤(33.8%)/너무(22.2%)/매우(11.5%)]로 빈도차이는 있으나 두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부사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해 인간번역에서는 [기타표현(16.4%)/상당히(12.3%)/너무(10.6%)]가 상위 랭킹을 차지하여 기계번역보다 기타 표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예(22)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변환되어 기계번역보다 넓은 의미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타표현과 함께 생략되는 부사비율이 10.4%로 높게 나타났다(예(24)). 이는 기계번역(5.31%)의 2배 가까운 비율로 인간번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부사생략이 행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19) **あまり**真剣に取られると面倒臭そうだから。 (君の臍臓 p.12)  
 → 너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귀찮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너의 취장, p.19)
- (20) いまでは**だいふ**大人しくなっている。 (光 p.13)  
 → 꽤 안정된 상태다. (광대, p.14)
- (21) 二人の共通の友人は**けっこう**多いのだ。 (海 p.96)  
 → 둘 다 잘 아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바다, p.153)
- (22) **あまりにも**美しいその景色に圧倒されて、僕ら家族は立ち止まった。 (世界, p.151)  
 →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풍경에 압도된 우리 가족은 우두커니 멈춰서서 (세상, p.168)
- (23) 実際には**かなり**疲れているようだ。 (ほど, p.170)  
 → 상당히 지친 모양이다. (머지, p.235)
- (24) 静かではあるけれど**とても**簡潔な、 (騎士, p.478)  
 → 조용하지만 꽤 간결한, (기사, p.534)

<표 3> 정도 대(大)의 번역 양상

순위	기계번역		인간번역(개수)
	구글(개수)	파파고(개수)	
1	매우(170)	꽤(210)	(기타표현)(103)
2	꽤(158)	너무(138)	상당히(77)
3	너무(93)	매우(72)	너무(66)
4	상당히(86)	아주(58)	(부사생략)(65)
5	(부사생략)(33)	상당히(49)	꽤(62)
6	아주(23)	많이(35)	무척(49)
7	상당한(14)	상당한/ (기타표현)(13)	매우(47)
8	좀처럼(11)	(부사생략)(9)	아주(33)
9	많은(7)	광장히(7)	몹시(32)
10	많이/대단히(기타표현)(6)	광장히(7)	광장히(25)
11		사뭇(5)	제법(26)
12	광장히(5)	제법/한참(4)	대단히(11)
13			상당한(8)
14	훨씬(2)	대단히/좀처럼/몹시(1)	많이/훨씬(6)
15	몹시(1)		사뭇(3)
16	제법/무척/한참/사뭇(0)	많은/훨씬/ 무척(0)	많은/한참(1)
17			좀처럼(0)
18			
19			

### 3.2 오용 및 변용

일한 번역과정에서 생겨나는 어순변화, 오역, 생략이나 첨가, 변용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각각 621개 중 구글 135개(21.7%), 파파고 54 (8.6%)개의 부사가 나타났다.<표 4>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어순변화는 구글에서 나타나지 않아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번역하는 양상을 띄었으며, 이에 비해 파파고에서는 예(25)와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어 부사 자체의 오역에서는 구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なかなか」의 오역이 두드러진다. 이는 예(26)과 같은 궁·부정 기능에 관한 판단오류로 인한 발생이다.

전체적으로 부사의 오역뿐만 아니라 부사를 내포한 구(혹은 문)의 다른 요소의 오역으로 인한 부자연스런 문장은 파파고에 비해 구글에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파파고의 부사 및 부사 내포문의 오역은 3.3%로 상당히 정확하게 부사 및 부사 삽입문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사 생략은 구글에서의 발생율이 높았으며 특히 「ずいぶん」(예(27))의 생략이 눈에 띄었다. 이와 반대로 번역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사첨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25) 「ああ見えても父さんは、昔**とても**足が早かったのよ」 (世界, p.149)  
 → 그래 보여도 아빠는 옛날에 발이 **너무** 빨랐거든. (파)
- (26) この義妹は**なかなか**合理的な物の考え方ができる人だ、と感心して頷いた。  
 (コ, p.151)  
 → 이 여동생은 **쫄쳐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탄하고 수긍했다. (구)
- (27) 一緒に暮らしていた男はいたが、もう**ずいぶん**昔別れている。 (海, p.68)  
 → 함께 살고 있던 남자는 있었지만, 이미 **∅** 옛날 헤어지고 있다. (구)  
 → 같이 살던 남자는 있었지만, 벌써 **∅** 오래전 헤어졌다. (파)

마지막으로 부사 변용은 예(28)의 [오히려]와 같이 부사의 의미가 변화하여 정도부사에서 진술부사로 사용되거나 예(29)와 같이 부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품사 전성 등을 분류한 것이다. 구글에서는 「だいぶ」에서만 변용 현상이 나타났고 파파고에서는 「かなり/ずいぶん/なかなか」에서 나타났다. 이외에 예(30)과 같이 명사와 결합하여 [상당히 시간이 지나간 과거]를 의미하는 명사로 전성하여 나타난 예도 있다.

- (28) あっちの責任だからって予約してたことより**大分**いい部屋を用意してくれる  
 みたいなんだけど (君の隣臈, p.116)  
 → 저기의 책임이라서 예약했던 것보다 **오히려** 좋은 방을 준비해 주는 것 같지만 (구)
- (29) まあNHK乗っ取りよりは**だいぶ**現実味はあるかもだけど (君の名, p.164)  
 → 글썄 NHK 탈취보다는 현실감이 **많을지도** 모른다 (구)
- (30) いや、もう結論は**ずいぶん**前に出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世界, p.108)  
 → 아니, 이미 결론은 **오래전에** 나와 있었을지도 몰라. (파)

<표 4> 기계번역에서의 정도 대(大)의 오용 및 변용

(구글/파파고 총합)		구글						파파고						
		あまり	かなり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ぶ	とても	なかなか	あまり	かなり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ぶ	とても
어순변화(0/15)										2	10	2	1	
오역	부사자체(13/3)	3	1				9	1					1	1
	부사내포문(83/18)	20	12	9	13	5	21	3	5	4	1	3	2	3
부사생략(33/9)		3	1	2	20	1	6			3				3
부사첨가(0/0)														
부사변용(7/9)					1	6				4		4		1
합계(136/54)		26	14	11	34	12	27	12	5	12	3	17	4	8

이에 비해 인간번역에서는 부사 자체의 오역 및 부사 내포문의 오역 발생은 없었으며 어순변화(47개/예(31))와 부사생략(65개/예(32)), 부사변용(53개/예(33))만이 나타난다. 이는 기계번역에서도 나타난 양상으로 인간번역 뿐만 아니라 기계번역에서도 어순변화나 부사생략 특히 부사변용이 발생한 점은 원문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방증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인간번역에서 오역항목의 사례가 없다는 점은 번역의 정확성에서는 아직까지 인간번역이 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31) **ずいぶん**時間が経ったように思えたが (海, p.82)

→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른 것 같았는데 (바다, p.90)

(32) 「**免色**さんにはいつも**とても**お世話になっています」 (騎士, p.400)

→ 멘시키 씨에게는 늘 ∅ 신세지고 있습니다. (기사, p.446)

(33) 思ったよりも**だいぶ**グロテスクなそれに、僕は**かなり**食欲を見失う。

(君の臍臓, p.30)

→ 예상보다 훨씬 더 그로테스크한 모양새여서 나는 대부분의 식욕을 잃었다.

(너의 취장, p.36)

## 4. 정도 소(小)의 양상

### 4.1 한국어와의 대응 양상

#### 4.1.1 기계번역

구글에서 「すこし」는 [조금(90.1%)]과 [좀(7.0%)]으로 나타나 줄임말 [좀]을 포함하면 97.1%가 [조금]으로 번역되었다. 이어 「ちょっと」는 [조금](70.5%)과 [잠깐](18.6%)의 의미로 크게 나누어 나타났다. 파파고 역시 「すこし」의 번역양상은 구글과 유사하였고, 「ちょっと」의 경우는 [좀](47.4%), [잠깐](16.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의 [조금]은 [정도나 분량이 적게, 시간적으로 짧게], [좀]은 [조금의 준말,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말, (주로 ‘-어야’ 앞에 쓰여)어지간히, (주로 수사 의문문에 쓰여)얼마나로 정의된다. 이어 [잠깐]은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동안에]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少し」는 [조금]의 의미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용되는 반면 「ちょっと」의 [좀]은 상기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나타난 비와 같이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의 완곡 표현으로서의 기능이 보인다.

즉 담화 상에서 다양한 의미기능을 지니는 「ちょっと」가 기계번역에서도 예(35)(36)와 같은 용법으로 부차적 기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기계번역이 단순히 어휘의 변환작업에 그치지 않고 담화의 흐름을 이해하여 「ちょっと」가 지니는 부탁이나 머뭇거림, 부름 등의 다기능(多技能)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는 「ちょっと」가 나타내는 정도 소(小)의 용법을 뛰어넘어 담화 상에서의 다양한 부차적 기능을 이해하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인간번역에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

(34) 表示されているのは、六時を少し過ぎた時刻だ。 (海, p.201)

→ 표시되는 것은 6시를 조금 지나간 시간이다. (구)

→ 표시된 것은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다. (파)

(35) 「-ちょっと。ちょっとそこのお兄さん」「え、あ、はい。」 (君の名, p.60)

→ “- 어이, 잠깐 거기 오빠” “에, 아, 네!” (구)

→ “-잠깐, 저기 오빠” “에, 아, 네!” (파)

- (36) 「お兄ちゃんが描いたの? な、**ちょっと**見せてくれる?」そう言って、おばあちゃんは俺からスケッチブックを受け取る。「よく描けとるわあ。なあ、**ちょっと**、あんた!」 (君の名, p.119)
- “오빠가 그린거야? 조금 보여줘?” 그렇게 말해, 할머니는 나로부터 스케치북을 받는다” 잘 그릴 수 있어. 뭐, **잠깐**, 너!” (구)
- “오빠가 그린 거야? 뭐 좀 보여줄래?”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는 내게 스케치북을 받는다.“잘 그려. 야, 야, 야, 너!” (파)

<표 5>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한국어 대응표

한국어 표현	기계번역				인간번역	
	구글		파파고		すこし	ちょっと
	すこし	ちょっと	すこし	ちょっと		
조금	293	151	238	13	109	26
조금만			5	1	8	6
좀	23	13	42	102	48	52
약간			7	8	49	6
약간의	4		5	1	4	
잠깐	3	40	5	35	4	32
잠깐만(요)		3		27		15
잠시		1	6	1	30	4
잠시만(요)		4	1	1		
얼마	1		11	3	10	2
살짝			3	3	5	6
기타	1	1	1	8	33	37
생략		1	1	11	24	28
생성						
총계(1,617개)	325	214	325	214	325	214

#### 4.1.2 인간번역

인간번역에서 「少し」는 크게 [조금(35.3%)/약간(16.6%)/좀(14.7%)], 「ちょっと」는 [좀(24.2%)/잠깐(21.9%)/기타표현(17.2%)] 과의 대응이 많았다. 특히 기계번역(2.4%)과 달리 생략(9.6%)과 기타표현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예 (38)(39)). 이는 부차적 성분으로서의 부사가 문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혹은 생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일부 번역어로의 쓸림현상이 두드러진 「少し」에 비해 담화 상에서 부름이나 머뭇거림, 제지, 망설임 등의 기능을 보이는 「ちょっと」는 기타표현이 많다(예(40)~(42)). 이는 여러 가지 부차적 의미기능을 통해 인간번역에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으로의 변환 양상은 많이 완화되고 있다.

- (37) 少し固まっているけどなかなかいける。 (君の隣臈, p.64)  
 → 약간 길긴 감이 있었지만 제법 괜찮았다. (너의 취장, p.68)
- (38) ちょっとちょっと、桃の汁でお化粧がぐずぐずだよ。 (海, p.76)  
 → 아이 정말, 즈이 다 흘러서 화장이 엉망이 되었잖아. (바다, p.84)
- (39) 少し特殊な仕事をしていたもんね。 (ほど, p.64)  
 → ㄹ 특별한 일을 많이 했거든 (머지, p.90)
- (40) ちょっとちょっと探し物。 (海, p.108)  
 → 쭈 찾을게 있어서 (바다, p.166)
- (41) ちょっとな、ちょっと見せてくれる? (君の名, p.119)  
 → 저기, 잠깐 봐도 돼? (너의 이름, p.122)
- (42) 「ちょっとちょっとー!なんなんすかー、もう大きさにー!」 (世界, p.90)  
 → “아 진짜, 미치겠네! 대체 뭐니까, 엄살이 심해도 유분수지!”(세상, p.99)

#### <표 6> 정도 소(小)의 번역 양상

순위	기계번역		인간번역(개수)
	구글(개수)	파파고(개수)	
1	조금(444)	조금(251)	조금(135)
2	잠깐(43)	쭈(144)	쭈(100)
3	쭈(36)	잠깐(37)	(기타표현)(70)
4	잠시만요	잠깐만요(27)	약간(55)
5	약간의(4)	약간(15)	(생략)(52)
6	잠깐만요(3)	얼마(14)	잠깐(36)
7	(기타표현)(2)	(생략)(12)	잠시(34)



8	잠시 얼마 (생략)(1)	(기타표현)(9)	잠깐만(요)(15)
9		잠시(7)	조금만(14)
10		조금만 약간의 살짝(6)	얼마(12)
11	살짝(11)		
12	조금만 약간 살짝(생성)(0)	잠시만(요)(2)	약간의(4)
13			잠시만(요)
14		(생성)(0)	(생성)(0)

#### 4.2 오용 및 변용

<표 7> 정도 소(小)의 오용 및 변용

(구/파/인간 총합)		기계번역				인간번역	
		구글(개수)		파파고(개수)		(개수)	
		すこし	ちょっと	すこし	ちょっと	すこし	ちょっと
어순변화(29/59/77)		26	3	34	25	57	20
오역	부사 자체(20/2/0)	1	19		2		
	부사내포문(103/17/0)	55	48	7	10		
부사 생략(3/16/53)			3	1	15	24	29
부사첨가(0/0/0)							
부사 변용(14/61/48)		5	9	24	37	22	26
합계(169/155/178)		87	82	66	89	103	75

어순변화는 구글29개, 파파고59개로 파파고에서의 어순변화가 많이 나타나 인간번역(77개)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오역 항목을 살펴보면 구글에서는 「ちょっと」자체의 오역(예(43))이 높게 나타난 반면 파파고에서는 급격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부사 내포문의 오역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 구글의 부사내포문의 오역(예(44))은 103개로 파파고(17개)의 6배에 이른다. 이는 정도의 대소를 모두 합친 전체 부사(1,125개)의 약 9%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러 부사생략에서는 인간번역이, 부사변용에서는 기계번역의 파파고가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예(45)와 같이 반복 사용된 부사 혹은 문장 전체의

큰 의미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생략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少し」에 비해 「ちょっと」의 생략율이 높은 것은 「ちょっと」가 지니는 다양한 부차적 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예(46)).

품사의 전성이나 의미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변용에서 기계번역(특히 파파고)이 인간번역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변용에서 많이 나타난 예는 [조금/약간/잠깐/잠시]의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의 혼용이다. 「少し/ちょっと」역시 활용을 할 수 없는 부사에 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사를 수반하거나 조동사를 수반하는 예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를 배제하고 오로지 「少し/ちょっと」의 형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번역 양상에서 이들 부사에 조사가 접속하여 품사와 의미에 변화를 초래하였다(예(47)(48)).

이는 기계번역이 원문의 어순이나 정도부사의 사전적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문장 내에서의 부사를 유동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어휘의 일대일 변환 작업이 아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여 산출하는 능력의 가능성을 적어도 정도 소를 나타내는 정도부사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번역 시 다양한 변화의 시도는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기계번역 역시 문맥에 맞는 변화를 시도하여 자연스럽게 번역해나가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이는 인간번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는 표현의 자연스러움이나 유연함, 다양함을 일정정도 기계번역에서도 담당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43) ちょっとちょっと、桃の汁でお化粧がぐずぐずだよ。 (海, p.76)

→ 조금 조금, 복숭아의 국물로 화장이 어지러워. (구)

(44) なんかちょっとムカつく。 (君の名, p.53)

→ 뭔가 약간 실망스러워요. (구)

(45) ちょっとちょっととちょっとちょっと (君の隣臈, p.88)

→ 잠깐만요, 잠깐만요. (파)

(46) 格子戸から顔をのぞかせた母の第一声は「ちょっとあんた何やってるの。」だった。 (海, p.90)

→ 창살문으로 얼굴을 비춘 어머니의 첫마디는 ㄷ 너 뭐하니였다. (파)

- (47) 少し時間がかかった。 (騎士, p.215)  
 →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구)
- (48) いや、もう少し考えてみて (コ, p.96)  
 → 아니,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파)

반면 인간번역에서의 오역 예는 없으며 어순변화(예(49)와 생략(예(50)), 변용(예(51))의 항목이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번역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 양상이다. 즉 인간번역의 고유한 영역이라 여겨지는 번역의 명료성, 표현의 정확성, 표현의 유연성 등이 적어도 정도 소의 기계번역에서는 인간번역의 세계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9) 少し成績が下がったからって、 (告白, p.51)  
 →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고백, p.50)
- (50) 指摘されたことに少しショックを受けながら、笑ってごまかした。 (ほど, p.123)  
 → 대번에 내 상태를 알아본 것에 ∅ 충격을 받고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머지, p.169)
- (51) 「ごめん、やめて、ちょっと待って、今のなし」 (君の隣臈, p.323)  
 → “헉, 미안. 아냐, 아냐 방금 한 말 취소 취소” (너의 취장, p.318)

## 5. 결론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정도부사의 양상을 정도 대와 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정도 대의 정도부사는 한국어 대응관계에서 일정 부사로 대표되는 쓸림 현상이 보인다. 부정적 평가성을 다수 내포한 「あまり」는 [너무]로, 순수 정도의 한정용법만을 지닌 「とても」는 [매우/아주]로 나타났다. 이외의 순수 정도와 양적정도 모두에 쓰이고 중립적인 평가성을 지니는 「かなり/けっこう/ずいぶん/だいぶんかなかなか」는 [꽤/상당히]로 변환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양성(量性)을 많이 지니는 「ずいぶん」과 「だいぶん」은 [꽤] 이외에 [상당히/

많이]에서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오용과 변용에서 어순변화는 「けっこう/ずいぶん/だいぶ/とても」에서, 부사생략은 「ずいぶん/とても/かなり」등에서 나타났다. 특히 「ずいぶん」은 어순변화와 생략 이외에 변용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 부사 중 하나였다. 이러한 변용은 원문 그대로를 일대일로 변환하지 않고 문맥의 흐름에 따라 어순의 위치나 부사의 생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인간번역에서 시도하는 변화 도모가 기계번역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도 소를 나타내는 「少し」「ちょっと」는 한국어 대응관계에서 크게 [조금]과 [좀]으로 나타났다. 특히 「ちょっと」는 정도 소 이외의 부탁이나 동의, 부름, 제지 등의 표현으로서도 나타나 「ちょっと」가 지니는 부차적 기능이 기계번역에서도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번역에 상당히 가까운 일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인간번역에 근접한 양상은 오용과 변용에서도 보인다. 부사의 위치 변화를 도모하거나 반복되는 부사의 생략, 자연스런 문맥을 위한 부사의 변용 등의 예이다. 특히 파과고의 오역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어순변화, 생략, 변용 등의 변화 양상이 높게 나타난 점은 기계번역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번역과 같은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함께 고찰하지 못한 기계번역에서 나타나는 정도부사의 한 일변역 양상은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参考文献>

- 朴舜愛(2014) 「일·한기계번역과 일본어교육」 『日本語文學』 제67집 pp.97-121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169-185  
 장은화(2021) 『한국어 정도성 부사의 의미』 한국문화사 pp.104-107, pp.178-186  
 仁田義雄(2002) 『新日本語文法選書3 副詞的表現の諸相』 くろしお出版 pp.145-199  
 林奈緒子(1997) 「程度副詞と命令のモダリティ」 『日本語と日本文学』26 筑波大学 pp. 1-10  
 森山卓郎(1985) 「程度副詞と動詞句」 『国文学会誌』20 京都教育大学 pp.60-65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검색일:2022.12.11)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 (검색일:2022.12.11)

<예문출전>

- 가와무라 겐키/이영미 옮김(2022)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소미미디어  
나가쓰키 아마네/이선희 옮김(2020) 『머지않아 이별입니다』 해냄출판사  
무라카미 하루키/홍은주 옮김(2017) 『기사단장죽이기 1』 문학동네  
무라타 사야카/김석희 옮김(2016) 『편의점 인간』 살림출판사  
미나토 가나에/김선영 옮김(2021) 『고백』 김영사  
미치오 슈스케/한성례 옮김(2012) 『광매화』 씨엘북스  
신카이 마코토/박미정 옮김(2020) 『너의 이름은』 대원씨아이  
스미노 요루/양윤옥 옮김(2017)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소미미디어  
오기와라 히로시/김난주 옮김(2017)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알에이치코리아  
荻原 浩(2019) 『海の見える理髪店』 集英社  
川村元氣(2014) 『世界から猫が消えたなら』 小学館  
新海 誠(2016) 『君の名は』 角川文庫  
住野よる(2017) 『君の隣臓をたべたい』 双葉社  
長月天音(2018) 『ほどなく、お別れです』 小学館  
道尾秀介(2010) 『光媒の花』 集英社  
湊かなえ(2010) 『告白』 双葉社  
村上春樹(2017) 『騎士團長殺し 1』 新潮社  
村田沙耶香(2018) 『コンビニ人間』 文春文庫

접 수 일: 2023년 7월 11일

심사완료: 2023년 7월 26일

게재결정: 2023년 7월 27일

## &lt;Abstract&gt;

**A Study on the Processing Pattern of Adverbs of Degree in Machine Translation**

—Focusing on the translation from Japanese to Korean—

Aspects of the adverbs of degree in machine translation are divided into large and small degrees.

Large-degree adverbs are represented by certain adverbs in correspondence with Korean. “あまり(amari),” which contains a number of negative evaluations was found to be “너무(neomu),” and “とても(totemo),” which has only limited usage of pure degree was found to be “매우(maeu)” and “아주(ajou).”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かなり(kanari),” “けっこう(kekko),” “ずいぶん(zuibun),” “だいたい(daibu),” and “なかなか(nakanaka),” which are used in pure and quantitative degrees have neutral evaluations that are converted into “꽤(kkawe)” and “상당히(sangdanghi).”

Word order variation in misuse and transformation appeared in “けっこう,” “ずいぶん,” “だいたい,” “とても,” and adverbial omissions appeared in “ずいぶん,” “とても,” and “かなり.” “ずいぶん” especially was one of the prominent adverbs in transformations in addition to word order variation and omission.

“少し(sukoshi)” and “ちよっと(chotto),” which represent small degree adverbs, were largely found to be “조금(jogeum)” and “좀(jom)” in Korean correspondence. In addition, examples such as changing the positions of adverbs, omitting repeated adverbs, and transforming adverbs into natural contexts appeared. In particular, the secondary functions of “ちよっと” such as request, consent, call, and restraint also occurred in machine translation.